

# 생활 속에 깨달음 있더라

‘삶이 외롭고 괴로운 것은 팔자운명 때문이 아니다. 부처님 법, 마음 법에는 본래 팔자 운명이 없다. 없는데도 내가 짓고 만들어서 팔자니 운명이니 이름붙인 것이다.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삶이 어둡고,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삶이 밝아진다. 마음의 본바탕을 잃고 다만 잘나에 일어났다가 꺼지고 꺼졌다가 일어나는 내 상념의 먹구름을 내 마음인줄 알고 사니까 어둡고 편협해지는 것이다.’

1972년 경기도 안양에 조계종 한마음선원을 세우고 현재 국내 15개 지원과 미국 독일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7개 해외지원을 통해 참자유인이 되는 길을 가리켜 보이고 있는 대행 스님(한마음선원 원장). 스님은 “마음의 본바탕이 허공처럼 텅 비어 있는데 그런 마음에 금을 갖고 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 중생의 모습”이라고 설한다. 그래서 스님은 “마음도리를 모르니 무명”이라고 밝힌다. 즉 “마음은 그 본성이 푸른 하늘과 같아서 맑고 깨끗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장막을 만들어 저 맑은 거울을, 저 푸른 하늘을 가려놓고 산다. 그러면서 어둡다고, 괴롭다고 한다”고 스님은 “나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는 한마음 주인공(主人)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그것만이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요, 억견 전부터 풀어지고 온 집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때를 찾는 작업”이라고 가르친다. 이 것이 바로 대행 스님이 설파하는 한마음의 진리이다. 스님은 불자는 물론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얘기한다. “내가 바로 화두요, 내 삶이 참선”이라며 “한마음 넓게 써서 세세생생 자유롭게 살라”라고. 스님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의 마음은 하나이다. 너와 나의 구별이 없다. 우주 전체는 인간의 근본마음과 직결되어 있다. 우주 삼천대천 세계는 그냥 하나로 통해서 벽도 천장도 없다”고 말한다. 즉 “일체 제

불의 마음이 곧 한마음이고 일체제불의 법이 곧 한마음의 법이며 생활이다.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 나가면서 ‘나’라는 상을 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놓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참선”이라고 설명한다.

따뜻하지만 천둥같은 큰 울림을 지닌 글들로 채워진 <禪, 침묵의 천둥소리>(전 2권)는 1994년 현대불교신문을 창간해 사장을 맡아온 뒤 현재 국제신문 대표이사인 김광삼 사장(필명 김시행)이 대행 스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5년여에 걸쳐 써온 불법 이야기.

이 책은 평생 언론인으로 한길을 걸어온 저자가 스승인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가려뽑아 인용해가면서 쓴 글이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면 속세의 이야기와 스님의 가르침이 혼합되어 있다. 생활속의 법문인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대행 스님의 사상을 대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달음의 보고”라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아무리 풀어도 써도 다할 없는 에너지의 원천이 우리 자신안에 있을 것을 가리켜 보이는 대행 스님의 ‘한마음법’이 마침내 우리에게 자유의 열쇠를 쥐어준다”고 강조한다. <禪, 침묵의 천둥소리>에는 자기 삶을 자신있게 요리 할 수 있는 ‘주인공’ 사상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인공은 나와 일

체만유의 주인이자 근원인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며, 자기의 실상이다. 목마르면 물마시듯이, 자고 먹고 싶으면 먹듯이, 그렇게 일체를 주인공이 길잡이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만큼 죽고 사는 문제 등 일체를 주인공에 맡겨야만 자기 삶의 어엿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행 스님의 천둥같은 가르침이다.

이 책은 또 언제 어디서나 바로 우리를 주머니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외면하고 모르는 착하는 뿌리깊은 노예의 모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 이 책에 흐르고 있는 반가운 소식같은 글귀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교과서가 될 것이다. 김원우 기자 wakim@buddhapia.com

## 평생 언론인으로 살아온 저자가 대행 스님 가르침 바탕으로 쓴 ‘지금 여기’에서 주인공으로 살기



禪, 침묵의 천둥소리 1·2 김시행 지음 김영사 | 각 권 1만900원

### 네티즌강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조선시대 기록문화

조선최고의 명저들 휴머니스트, 신병주 지음

“이곳에서 갑탄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 자존심이 상하는 한 가지는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병인양요 때 침공한 프랑스 장교 가운데 한 사람인 주베르가 남긴 말이다. 이 책의 저자인 신병주(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씨는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기록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드시 이 말을 인용하고 있다.

책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 기록문화만큼은 중국에 버금가거나 때로는 능가하기도 했다. 국가가 주도하여 편찬한 기록들, 이른바 관찬 기록(官撰記錄)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 가운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두 종은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되기도 했다. 한 국가의 기록들 가운데 성격이 비슷한 두 종이 모두 세계기록유산에 채택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만큼 우리의 기록문화는 뛰어났다.

이 책을 접하면서 다시 느끼는 것은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미미하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하층민과 여성의 지위는 그 당시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우리는 500년 전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것을 법전에 규정했던 나라였다는 것 등을 새롭게 알게 해 주는 책이다. (kks35679, book.naver.com/bookdb)



‘오래된 미래’ 찾아나가는 심오한 정신의 행로

연암을 읽는다 돌베개, 박희병 지음

한 줄의 연필 자국도 남길 수 없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읽고 또 읽고 싶은 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읽다가 언젠가는 분명한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책을 구입한 날로부터 일상적인 독서의 양태와 달리 이 책에는 손 자국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신주단지 모시듯 며칠에 걸쳐 아급아급 읽었다. 그리고 아쉬웠다. 책을 다 읽었다는 그 느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 가운데 인문서로 최고의 값이라 생각한다’면서 적극 권할 정도였다.

이 책 ‘연암을 읽는다’의 첫구절로 들어가 보자.

‘고(古)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이며, 그 점에서 하나의 ‘지속’이다. 우리는 이 지속속 속에서 잃었던 자기 자신을 환기하고, 소중한 자신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으며, 자신의 오랜 기억과 대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는 진정한 자기회귀의 본질적 계기가 된다. 진정한 자기 회귀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긍정하되 자기에 감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통해 자기를 재창조해 내는 과정이다. 이 점에서 ‘고’는 한갓 복원이나 찬탄의 대상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를 찾아 나가는 심오한 정신의 어떤 행로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의미의 ‘고’에 대한 탐구이다. (세발까마귀, aladdin.co.kr)



### 책속의 밑줄긋기

○... 우리에게 아버지란 어떤 존재일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쩌면 완벽한 존재이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인생의 항로에서 등대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을까. 언제 어디서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아버지도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 것이다. 아버지를 보면 참으로 불안정하고 초라하다고 느끼 적이 많았다. 아버지란 존재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란 참으로 지대하다. 내 아버지만이 아닌 세상의 많은 아버지를 보면서 그 존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게 된다. 요즘들어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것은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과 동시에 너무나 무력해진 아버지의 모습이 곳곳에 비치고 때문일 것이다. 시대가 힘줄수록 아버지의 역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자식으로 산다는 것> 281쪽에서, 깊은 강, 장기영등 21명 지음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바로보인의 책들**  
대행 문지행 전사(전 9권) / 2787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게자 대원 문제현 선사님  
역점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서(禪書)!

바로보인 전5권  
바로보인 부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중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목재로 세상을 목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선가귀감 출간!!!>

선가귀감은 깨닫고 닦아가는 비법이  
코스란히 전수되어 있는  
선가의 거울이라 할 만하다.  
다육이 바로보인 선가귀감은  
대 소걸마다 대원 문제현 선사님의 사상이  
화살을 과녁에 적중시키듯  
역대 조사와 서산대사의 의중을 꿰뚫어  
보여치러 빛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

www.bangaro.com/정두탁.kf@zenparadise.net  
TEL: (063) 323-3010-1  
FAX: (063) 323-3012

계좌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박영호

한국산 6년근 인삼 9중 9포한  
**약 왕 사**  
名品紅蔘  
(명 품 홍 삼)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홍삼 엑기스 판매”  
“자 죽염 판매”

약왕사 주지 정명 합장

■ 제조원: 약왕사 (왕술농산)

전화 054)371-6665  
팩스 054)371-6675  
휴대폰 010-2513-6665  
우체국 700963-01-000693 (예금주: 약왕사)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1-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www.bangaro.com/정두탁.kf@zenparadise.net  
TEL: (063) 323-3010-1  
FAX: (063) 323-3012